

# 상반기 일하는 70대 15만명 ↑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증가

### OECD “노동수명 늘리면 GDP ↑”

#### 다양한 고용 연장 사회적 논의 시급

올해 상반기 철수가 넘는 취업자가 약 15만명 늘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폭 증가했다.

급격히 늘어난 고령층 경제활동인구의 활용을 높여 경제 성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고용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평균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천8

4만9천명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2만명 증가했다.

주로 노년층이 일자리 증가세를 주도했다.

60대 이상 취업자는 작년 상반기보다 2만2천명 늘어 전 연령대 가운데 증가 폭이 가장 컸다.

특히 이 중에서도 70대 이상 취업자는 지난해보다 15만명 급증한 192만5천명으로 나타났다.

70대 이상 취업자 통계를 작성한 2018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전체 취업자 증가폭이 상반기 기준 2022년 9만1천명에서 지난해 37만2천명, 올해 22만명으로 꺾였지만 70대 이상 취업자 증가폭은 2022년 14만6천명, 작년 14만8천명에 이어 계속 증가세다.

반면 청년층(15-29세)은 올해 상반기 11만5천명 급감했다. 코로나19가 발발했던 2020년 상반기(-13만5천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경제 허리’인 40대 취업자도 1년 새 8만2천명 줄었다.

30대는 9만1천명 늘었지만, 노년층 증가폭의 3분의1 수준이었고 50대도 4만3

천명 늘었는데 그쳤다.

늘어나는 노인 노동력 공급에도 이들의 일자리 짙은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중장년층이 퇴직 후 상대적으로 저숙련·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인구 고령화에 대응해 노인 노동력을 경제 성장엔진으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이 계속 제기되는 이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발간한 ‘2024 한국경제보고서’에서 “노동 수명을 연장하고 노인 고용을 늘리면 국내총생산(GDP)과 재정 성과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한국에

조언했다.

OECD는 “노인들이 일자리에 남아 있거나 재진입하도록 장려하는 것은 전반적인 고용 증진에 있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으로는 연령과 관계 없이 직무 특성·성과에 따라 임금 연계를 하는 탄력적 임금체계를 도입하고 명예퇴직을 제한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연공주의에 따른 임금체계가 인 해 기업들이 조기퇴직을 강요하거나 장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OECD에 따르면 연공 서열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OECD는 연공 서열의 중요성을 줄이는 동시에 법정 정년을 늘리거나 회사별 의무 퇴직 연령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국은행도 이달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 세대가 올해부터 차례로 은퇴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약 0.4%포인트(p)까지 끌어내릴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한은은 “앞으로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낮은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2차 베이비부머 인력 활용을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서 정책적 뒷받침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로또 1등 63명 ‘역대 최다’

### 제1128회 당첨금 4억여원...광주·전남 각 3건

로또 1128회 추첨에서 무려 63명의 1등 당첨자가 나오면서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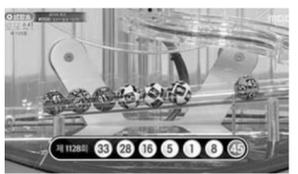
지난 13일 복권추첨사업자(주)동행복권의 제1128회 로또복권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1, 5, 8, 16, 28, 33', 2등 보너스 번호는 '45'가 뽑혔다.

로또 당첨번호 6개 숫자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총 6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2년 12월 로또 발행이 시작된 이후 최다 기록이다.

종전 최다 기록은 2022년 6월 12일 추첨을 진행한 1019회에서 나온 50명이다.

무더기 당첨에 따라 1등 당첨금은 4억1천992만원에 그쳤지만, 역대 최저 기록을 깨지는 못했다.

지금까지 가장 적은 1등 당첨금은 30명의 당첨자가 나온 2013년 5월 18일(제 546회) 추첨으로 1인당 4억544만원이었다. 1019회 1등 당첨자 50명은 각 4억3천



MBC 생방송 행복드림 로또 6/45 방송 캡처.

86만5천원을 받았다.

이날 제1128회 전국 지역별 1등 당첨 분포를 보면 경기도가 가장 많은 16건, 다음으로 부산 11건, 서울 9건, 충남·전북·경남 각 4건, 광주·전남·충북 각 3건, 경북·강원 각 2건, 인천·대구 1건씩이다.

1등 로또복권의 구매 방식은 자동 11개, 수동 52개로 수동 당첨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가운데 5곳의 판매점에서 ‘수동’ 1등 당첨이 2회씩 나왔다. 5명이 같은 번호로 2개임을 구매해 1등에 2회 당첨됐을 가능성이 있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숫자가 일치한 2등 당첨 게임수는 77게임으로 1인당 5천728만원을 수령한다.

당첨번호 5개 숫자가 일치한 3등 당첨 게임 수는 2천987게임으로 1인당 당첨금액은 147만원이다.

1인당 당첨금액이 5만원인 4등과 5천원인 5등의 당첨 게임 수는 각각 15만3천592매, 254만5천750매다.

1128회차 총 로또 판매 금액은 1천113억6천419만4천원이다. /안태호 기자

### 로또복권 (제 1128 회)

등위	당첨금	당첨번호
당첨번호 1 5 8 16 28 33 / 보너스 45		
1등	419,925,560	6개 숫자 일치
2등	57,262,577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3등	1,476,137	5개 숫자 일치
4등	50,000	4개 숫자 일치
5등	5,000	3개 숫자 일치

## 건설경기 침체에 상반기 LH 공공택지 해약 1조 육박

### 작년 연간 대비 2.5배 급증...“고금리·공사비 급등에 사업 포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시행사나 건설사가 공동주택 용지를 분양 받은 뒤 대금 연체 등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사업장이 급증하고 있다.

공동주택 용지 신규 판매도 매우 저조해 주택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4일 LH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급 계약이 해지된 공동주택 용지는 총 13개 필지, 9천522억원에 달한다.

이는 작년 상반기 해약금액(1필지, 222억원)의 약 43배, 작년 연간 해약 금액(5개 필지, 3천749억원)의 2.5배에 달하는 규모다.

LH는 토지를 분양받은 업체가 대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이 해지될 경우 용지를 분양받은 시행사나 건설사는 공급 금액의 10% 수준인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LH 관계자는 “대금이 6개월 이상 연체되더라도 사업 의지가 있을 경우 바로 계약을 해지하지는 않는다”면서 “연체 이자가 계약금을 넘어서거나 업체에 돈을 빌려준 대주단이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분양받은 업체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계약금을 포기하고 토지를 반납하는 경우 등에 계약이 해지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공동주택 용지 대금 연체 규모는 41개 필지, 1조705억원 규모로 작년 말(64개 필지, 1조6천652억

원)보다 줄어들었다.

계약 해지가 급증하면서 해지 사업장의 연체 대금이 제외된 영향이 크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고금리와 프록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로 자금 조달이 힘들어지면서 대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업체가 많이 늘었다”면서 “급격하게 오른 공사비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에 사업을 접는 업체들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공사비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분양가가 급증했지만,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분양가를 올려받는 데에 한계가 있다.

공동주택 용지 신규 판매도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LH가 매각 공고를 낸 공동주택 용지 16필지, 1조1천430억원어치 가운데 매각된 토지는 2필지, 2천128억원 규모에 그친다. 작년 공고하거나 공모했다가 올해 매각된 2필지와 수의 계약까지 합쳐도 올해 팔린 공동주택 용지는 5필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말 기준 미매각 공동주택 용지는 50필지, 3조5천700억원 규모로 작년 말(32개 필지, 1조9천억원)의 두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했다.

LH의 주요 수입원인 토지 매각이 차질을 빚으면서 LH의 재무 건전성 악화와 주택 공급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연합뉴스



휘발유 가격 3주 연속 오름세

국내 휘발유 가격이 3주 연속 상승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4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0.당 1천711.97원으로 3주 연속 올랐다. 또 5월 셋째 주(1천702.9원) 이후 8주 만에 다시 평균 1천700원을 넘었다.

## 누구나 쉽게 바르는 황토 벽지

#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 살아 숨쉬는 고어텍스 특허공법 천연황토 코팅제!!

▶ 용도  
어린이집·유치원·한옥 내·외부·방바닥·전원주택·경로당·아파트·펜션·찜질방·카페·휴집  
외벽·독채·양어장·물탱크·기타 인테리어를 요하는 곳  
비가 오면 축축하거나 물이새어 곰팡이 생기는 모든 곳  
기존 황토미장된 곳이나 도배지를 뜯지않고 위에 시공을 요하는 모든 곳  
비염으로 고생하는 어린이방이나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 친환경성  
천연황토, 게르마늄, 솔잎, 편백나무, 약쑥, 참숯, 은행잎등 건강에 좋은 재료를 염색하여 고분말로 만들어 술향기나는 친환경 웰빙 제품입니다.

▶ 색도조절제 화이트(600g) : 원하는 색상 조절가능

제가 황토 제품과 비교 절대 불가!!

▲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

시중에 검증 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 업체입니다.

전화 문의시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품구입시 시외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드림코리아  
DREAM KOREA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korea.biz